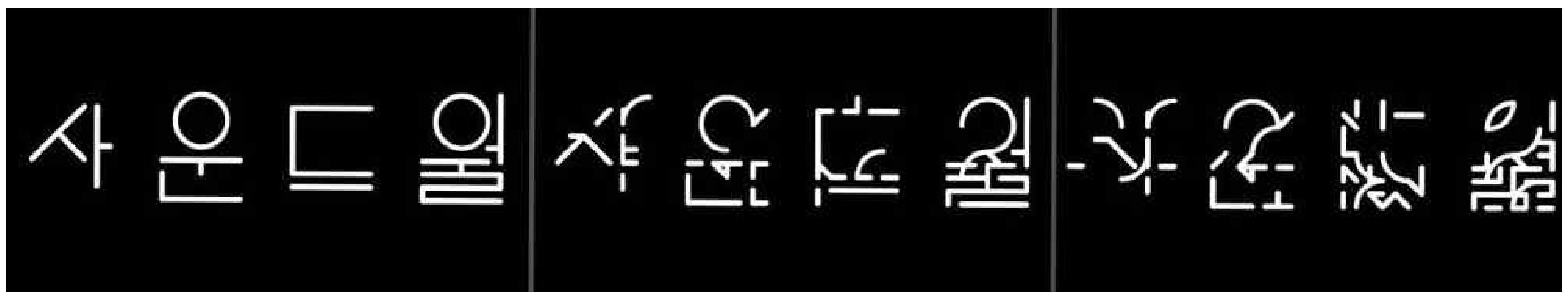
내가 보낸 문자 '미디어월' 작품 되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하늘마당을 지나다 보면 ACC 랜드마크이자 콘텐츠 홍보 플랫폼인 '미디어월'을 볼 수 있다.

미디어월은 지금까지 전당의 홍보를 담당하는 기능 외에도 시민들과 소통하는 '창'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미디어월을 매개로 모바일을 통해 텍스트를 입력하면 영상을 볼 수 있는 참여형 전시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사진〉

미디어월·미디어 큐브 '사운드 월'
ACC 시민 참여형 전시 '눈길'
75m 미디어월에 텍스트 보내면
점·선·면 기하학적 도형 만들어
'디지털 공감의 창' 내년 2월 4일까지

전시는 75m에 달하는 미디어월에 한글을 구성하는 점과 선, 면 등의 기하학적 도형이 해체되거나 합쳐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한글이 의미 전달 수단을 넘어 예술적 전달 매체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번 ACC 미디어월과 미디어 큐브의 '사운드 월' 전시는 관객 참여에 초점을 맞췄다. 전시 주제는 '디지털 공감의 창(窓)'이며 3일부터 내년 2월 4일까지다.

이번 전시는 사운드 월(미디어월 오후 8시~밤 10시)과 사운드 슬로프(미디어큐브 오후 5시~7시) 등 두 개의 참여형 전시 작품과 이와 연계한 '태싯.퍼폼[ㄱㅈㄴㅁㅇ]' 공연으로 구성됐다.

먼저 사운드 월은 문자를 입력하면 입력한 텍스트는 화면에 표시되는 구조다. 글자를 이루는 획들은 해체돼 미디어월 전체를 돌아다닌다. 흥미로운 점은 이 과정에서 한 글자가 다른 글자로 변화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글자를 이루던 요소들이 다른 도형을 이루기도 하고 게임적 요소로 바뀌기도 한다.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상상력을 불러일으킨다. 이 같은 과정은 기하학적 특징, 건축적 특징을 글자를 매개로 영상과 소리를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미디어월의 영상과는 다른 재미를 즐길 수 있다.

미디어큐브 에스컬레이터에 설치된 화면에 훈민정음 창제원리 기반이 되는 글자가 결합 또는 해되는 작품을 구현한 '사운드 슬로프'는 입체적이다.

모바일에 문자를 입력하면 그 글자가 나타났다가 원이나 세모, 네모로 해체된다. 여기서 원과 세모, 네모는 각각 훈민정음 창제원리인 하늘, 땅, 사람으로 기호화된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화면에 갑자기 장애물이 나타나고 글자를 이루던 요소들이 그 장애물과 충돌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효과음을 발생한다는 것이다. 미디어큐브에 설치된 모두 24개의 스피커는 관객에게 현실에서는 들을 수 없는 소리를 선사한다.

글자의 획들이 악보가 되는 공연도 감상할 수 있다. '태싯.퍼폼[ㄱㅈㄴㅁㅇ]' 공연의 관객이 글자를 입력하면 그 글자들이 초성과 중성, 종성으로 분화되고 다시 획들로 나누어지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된다. 각각 분파된 획들은 리듬의 파편에 대응되고 다양한 획들의 조합은 리듬의 조합으로 구현된다.

이번 작업은 '태싯.퍼폼[ㄱㅈㄴㅁㅇ]'의 작곡가 장재호, 전자 음악가 가재발(이재원)이 참여했다. 연계 공연은 오는 4일 오후 7시 복합전시관에서 ACT 페스티벌을 통해 관객들과 만난다.

작품 관람은 무료이며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43명 시민 음악가들의 클래식 하모니

문화전당 시민오케스트라, 6일 ACC 예술극장 극장1

'ACC 시민오케스트라'는 일상 속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으며 올해로 창단 7년째를 맞았다. ACC 시민오케스트라는 생업으로 인해 음악을 포기해야 했던 시민 음악가들이 장롱 속 악기를 꺼내 만든 아름다운 공연을 펼치는 무대다.

2022 ACC 시민오케스트라가 오는 6일 ACC 예술극장 극장1에서 공연을 펼친다. 이번 공연에는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43명의 시민 음악가들이 참여한다. 전문가들의 지도 아래 약 5개월 동안 꾸준한 연습을 진행해 온 시민 음악가들은 이번 무대에서 수준 높은 기량의 합주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날 공연에서는 지휘자 변욱의 지휘로 베토벤 5번 '운명'교향곡을 비롯하여 엘가 첼로협주곡, 베토벤 아테네의 폐허 서곡 등 대중에게 친숙한 클래식 명곡을 연주한다. 협연자는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첼리스트 이아미, 바리톤 오장원 등이 출연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행복, 덴마크에서 답을 찾다

광주문화재단 렉처콘서트, 10일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 강연

우리 모두의 삶의 목표는 행복이라 해도 될 만큼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며 산다. 그러나 저마다 행복에 대한 가치와 답은 다르다.

행복에 대해 일말의 답을 찾을 수 있는 강연이 열려 눈길을 끈다.

광주문화재단이 진행하는 빛고을융복합렉처콘서트 올해 마지막 순서는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덴마크에서 답을 찾다'라는 주제로 오연호〈사진〉 오마이뉴스 대표가 강연을 한다. 오는 10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 아트스페이스.

오 대표는 이번 강연에서 '행복한 교육이 삶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를 이라는 부제로 행복한 사회 및 삶에서 출발한 행복한 교육, 세계 행복지수 1위 덴마크 사회구조와 비교 등을 이야기한다. 또한 창의적 배움과 민주적 교육방식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성 등에 대해서도 들려줄 예정이다.

오연호 대표는 사단법인 꿈틀리 이사장,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 월간 '말' 워싱턴특파원 등을 역임했다. 2018년 덴마크에서 교육 및 사회개혁가에게 주는 '그룬트비상' 수상(비덴마크인으로 최초), 2006년 미국 스탠포드대 경영대학원 와픈-인포시스 경영혁신상 등을 수상했으며 '삶을 위한 수업', '우리도 사랑할 수 있을까' 등의 책을 펴냈다. 등 다수의 저서를 집필했다.

무료이고 선착순 100명. 관람신청은 3일부터 전화 사전 예약 가능하다. 문의 062-670-7926.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쇼팽의 편지는 피아노 선율을 싣고

김정아의 '피아니스트가 읽어주는 음악가의 편지' 7일 금호아트홀

피아니스트 김정아의 '피아니스트가 읽어주는 위대한 음악가의 편지'가 7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베토벤을 시작으로 슈베르트, 브람스, 모차르트에 이어 기획시리즈 형식으로 다섯 번째 열리는 연주회에서는 '어두운 열정의 시인'이라 불리는 쇼팽이 남긴 편지 속 이야기를 피아노 연주와 함께 만나볼 수 있다.

쇼팽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오감으로 작곡가의 삶을 이해하며 깊이 있는 곡을 선보인다. 프로그램은 쇼팽의 '피아노협주곡 제2번 2악장', '야상곡 다단조와 올림바단조', '마주르카 나단조', '빗방울전주곡', '발라드', 그리고 모차르트의 '진혼곡' 중 '눈물의 날' 등이다.

피아니스트 김정아는 서울예고, 이화여자대학교, 오스트리아 빈시립음악원(디플롬)과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대(콘체르트엑사멘)를 졸업했다. 현재는 광주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화예매(010-6331-6834) 가능하며 입장권은 2만원이다. 학생은 50% 할인된다.

쇼팽

피아니스트 김정아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여성가족재단 '젠더브리프' 59호 발간

광주여성가족재단이 '모두에게 평등한 문화시설 조성 및 운영 방안'을 주제로 '젠더브리프' 제59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 재단은 광주시 문화시설 특정성별영향평과 결과를 다뤘다.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근거해 지자체 소관 및 지방 공기업 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성별 특성을 고려해 분석하고 개선하는 과정이다.

평가 결과 대부분의 문화시설들은 이동 및 정보 접근에 있어 취약한 이동약자를 위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 사항들을 준수하고 있었다. 다만 이용자의 어린이, 신장이 작은 사람, 휠체어 이용자와 같은 신체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